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 신고



국세청, 149만명에 안내문... 사실과 다르다면 가산세 주택임대사업자, 소수지분 주택 계산 등 유의해야

주택임대업, 병·의원, 과외 강사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9일부터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

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회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 강사, 장례식장 등 해당 업종은 안내에 따라 수입금액 등 현황을 신고하면 된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등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작성해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다만 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판매원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해 오는 5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년도(20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과 2021년 주택보유내역 자료 등을 참고하면 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1.2%)와 월세를 더한 금액이다. 국세청은 공동소유주택에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 수에 이를 포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연합뉴스

작년 복권 판매액 6조원 육박

지난해 연간 복권 판매액이 6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5조9,755억원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했다. 복권판매액은 2017년 4조2,000억원, 2018년 4조4,000억원, 2019년 4조8,000억원으로 점차 늘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5조4,000억원으로 뛰었는데 지난해 역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복권 판매액(5조1,371억원)이 전년 대비 8.4% 늘었고, 인쇄복권 판매액(4,420억원)은 19.8% 증가했다. 연금복권(2,911억원)과 전자복권 판매액(1,053억원)은 각각 29.2%, 25.6% 증가했다.

사과·배 가격 작년보다 하락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 가격이 작년 이맘때보다 각각 21.3%, 17.5% 낮을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18일 발표한 '주요 과일 설 성수기 출하 속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사과 도매가격(상품·5kg 기준)은 2만3,000~2만6,000원에서 형성돼 작년보다 21.3% 쌀 것으로 전망됐다. 배 도매가격도(상품·7.5kg)는 작년보다 17.5% 낮은 3만1,000원~3만5,000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 기간 사과 출하량은 작년 설 성수기(1.28~2.10) 때보다 36% 증가한 3만6,000t(톤)으로 관측됐다. 배 출하량 역시 작년 설 성수기 때보다 60% 많은 1만7,000t으로 관측됐다.

즉석조리 4년 새 145.3% 성장

국내 즉석조리식품 시장 규모가 4년 새 145.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한 '2021 가공식품 세부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출하액 기준 국내 즉석조리식품 시장 규모는 2조118억원으로 2019년보다 18.7%, 2016년보다 145.3% 각각 증가했다. 즉석조리식품 시장 규모가 커진 요인으로는 편의점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가정 내 에어프라이어 보급 증가 등이 제시됐다. 조사팀은 최근 3개월 내 즉석조리식품을 산적 있는 20~69세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구매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즉석밥의 응답률이 82.8%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케러·짜장·덮밥소스류(77.4%), 국·탕·찌개류(75.6%), 간편조리세트(밀키트)(63.6%) 등의 순이었다.

광주TP-농기평, 농식품 산업육성 '맞손'

기술 연구개발·정보제공 등 협력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선민)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은 18일 광주테크노파크 중회의실에서 지역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농림식품 연구개발 정책·사업 기획 확대 ▲농림식품 연구개발 기술 확산·현장지원 강화 ▲농림식품 연구개발 정보제공·컨설팅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핵심 역량과 보유 자원을 바탕으로 광주지역의 농식품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기술거래 기관' 지정을 계기로, 올해부터 농림식품 연구개발 우수성과의 시장 진입 성공을 위해 기술거래 등 기술 상용화 전 과정 지원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해 12월 농업정책보급금지원과 농림식품 연구개발 우수성과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

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 대상 기술·기업을 발굴하고, 기술상용화 촉진 기반을 다지는데 노력하고 있다. 광주TP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스마트 가전산업 ▲복합금형산업 ▲디지털생체 의료산업 ▲광융합산업 등 4대 특화산업과 농식품 과학기술 간 융복합 과제를 발굴 추진한다. 또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도출해 농식품 연관 산업 육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김선민 광주TP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농식품 연구개발 기술을 확산시키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산업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일조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농식품 산업 중심의 다양한 연관 산업을 육성해 향후 지역 미래먹거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겨울 대표간식 맛껏 드세요" 제주항공은 18일 직원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호빵, 구운달걀, 어묵 등 겨울 간식을 무제한 제공한다. /제주항공 제공

중기 4곳 중 1곳 "설 자금사정 곤란"

코로나19 영향·판매·매출 부진 등 이중고 겪어 필요자금 2억7,150만원 전년보다 5,660만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8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4곳 중 1곳이 올해 설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26.0%는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했으며, 20.4%는 '원활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매출액과 종사자수가 적을수록 자금사정 '곤란하다' 응답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매출액 10억원 미만(48.7%)과 종사자수 10명 미만(38.1%) 기업이 타 규모에 비해 '곤란하다' 응답이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14.7%)보다내수기업(27.9%)에서 자금사정이 더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자금사정 곤란원인으로는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5.6%에 달했다. 뒤를 이어 판매·매출부진(68.3%), 원·부자재 가격 상승

(56.3%), 인건비 상승(31.3%), 판매대금 회수 지연(10.6%) 순이었다. 한편 중소기업은 올해 설에 평균 2억 7,150만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설(평균 2억 1,490만원) 대비 약 5,66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필요한 설 자금 중 부족한 자금 확보계획(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50.3%), 금융기관 차입(30.2%), 결제연기(21.1%)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대책없음' 응답이 21.1%로 지난해 설(10.4%)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린 기자



광주TP는 18일 분관 중회의실에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지역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TP 제공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